

韓國 가톨릭精神의 터전, 가톨릭大學

崔 昌 武

(가톨릭大 總長)

1. 沿革과 現況

1) 神學大學

본교는 1838년 프랑스인 앵베르(Imbert) 주교가 입국한 직후 한국인 사제양성을 위해 4명의 신학생에게 라틴어와 신학을 강의한 데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본교는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지며 이 땅에서 최초의 西歐學問을 강의한 터전이다. 비록 가톨릭 성직자 배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못하였지만, 국내 최초의 서구학문을 시작한 곳이며 한국 가톨릭 신학교육의 최고 중심기관으로서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항상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본교가 한국 가톨릭 신학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는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은 정하상에게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시켜 사제로 서품코자 하였으나, 1839년 己亥迫害에 그가 순교하게 되므로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선교사들은 1836년 金大建, 崔良業, 崔方濟 등 세 소년을 선발하여 中國 마카오에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들 중 김대건과 최양업이 神品聖事を

받고 귀국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김대건은 1846년 丙午迫害 때에 순교하고, 최양업은 1861년에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1854년 다시 학생들을 선발하여 신학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고 1855년 충청도 제천 배론에 성요셉신학교를 세워 신학교육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성요셉신학교는 설립 10여 년만인 1866년 丙寅迫害로 인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체포되거나 순교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쇄되었다.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다시 신학생을 선발하여 1885년 10월 28일 강원도 원주 범골(현재 여주군 오두막골 근처)에서 예수聖心神學校라는 교명으로 개교하였다. 그 후 1887년 3월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당시의 교과과정은 일반교양으로 라틴어, 한문, 역사, 지리, 천문 등을 가르치고 철학, 신학을 교수했다.

예수성심신학교는 1919년 설립된 大邱 성유스머노신학교와 함께 大神學校로 개칭하고 양신학교의 중·고등과를 분리해 東星商業學校에 병합시켜 전문부 3년, 대학부 4년의 편제를 두게 되었다. 42년 聖心大神學校를 현 혜화동 교지로 이전하고 대구신학교를 통합 예과 4년, 고

등과 2년, 본과 4년, 연구과 2년의 고등교육 과정을 설정하였다. 47년 4월 30일 '문고 제31호'에 의해 聖神大學으로 승격인가되었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51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다시 부산 영도로 이전, 가교사에서 수업을 계속하였으며 휴전 후 정상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54년에는 醫學部를 증설하였으며, 59년 校名을 가톨릭대학으로 변경하여 醫學部와 神學部의 편제를 두었다. 교육내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교부의 교육령에 따라 신학부는 6년제가 4년제로, 4년제가 다시 6년제로 바뀌는 학제 변동을 겪었다(6년제 때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4년제 때는 신학부 4년, 연구과 2년으로 운영).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고 교회의 내외변화 여건에 부응하며 70년에 발표된 사제양성 기본 지침서에 준하여 72년 학과 개편과 함께 신학교를 사제지망생뿐 아니라 일반신도와 수도자 등 평신도에게도 개방하게 되었다. 현재 신학과 80명, 철학과 40명의 입학정원이며 현재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신학사 1,800여 명, 신학석사 75명이다.

2) 醫科大學

의과대학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54년 4월 8일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여섯번째로 설립된 의과대학이며, 이같은 외대설립은 1936년 5월 불과 24병상 규모의 성모병원을 설립하고 꾸준히 의료활동을 전개해 온 서울교구가 좀더 본격적인 교회의 의료활동의 필요성을 점점하고 6·25 직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가톨릭 정신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실력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룩된 것이다. 같은 해 5월, 성요셉간호고등학교 설립을 계기로 의사와 간호사를 동시에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본교 의과대학은 그동안 의사 2,700명, 간호사 1,600명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국내 최대의 의료기관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입학정원은 의학과 100명, 간호학과 60명이다.

처음 간호고등기술학교로 시작된 본교의 간호사 양성교육은 63년 12월에 看護學科로 승격됨에 따라 본교는 명실공히 전문의료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급성장은 61년 12월 국내 최선의 의료시설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명동성모병원 개원과 함께 교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을 부속병원으로 하고, 부속연구소 및 도서관 등을 하나로 묶는 가톨릭 中央醫療院을 발족시킴으로써 더욱 확대되었으며 운영도 견고하게 되었다. 가톨릭 中央醫療院의 設立은 당시로서 국내 최초의 醫療院制度였으며, 지금은 국내 거의 모든 의과대학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0년과 61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좀더 넓은 부지를 물색하던 중 현재의 서초구 반포동 3만 5천 평 대지를 구입하여 80년에는 부속 강남성모병원을, 그리고 82년에는 의학부 건물을 완공하여 새로운 강남시대의 막을 올렸다.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북부 일원에 8개의 부속병원을 학생교육 및 실습병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본교는 국내 모든 대학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6개의 부설연구소 또한 국내에서 가장 알찬 업적을 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몇 년 안에 강남캠퍼스에 자리잡게 될 醫科學館(임상의학연구소)은 우선 그 규모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임상의학 관련 연구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머지 않은 장래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교육 및 진료,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大學院

본교 대학원은 현재 석사과정 270명, 박사과정 200명으로 신학, 의학, 간호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産業保健大學院을 인가받아 정원 90명을 확보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教育目標 및 方向

1) 神學大學

신학대학의 교육목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대학교육 목적을 밝힌 대한민국교육법 108조, 즉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기본 이념과 본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司祭職이라는 숭고한 목적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司牧職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知的, 實踐的, 靈性的으로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전통적인 가톨릭 聖職者의 양성을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靈性生活과 神學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을 뿐 아니라 平信徒 指導者도 양성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목은 교양과목과 신학 및 철학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언어인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및 현행 통용되는 외국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신학과에서는 철학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철학을 다루지 않고서는 신학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철학이나 신학은 문자의 발견 이후 계속되어 온 학문이기에 그 분량이 대단히 많고 제 학설이 무수히 많기에 어느 부분에 매료되지 않을 판단력과 옛 사상가들의 많은 사상들을 응용 발전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응용력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타 대학보다 이수학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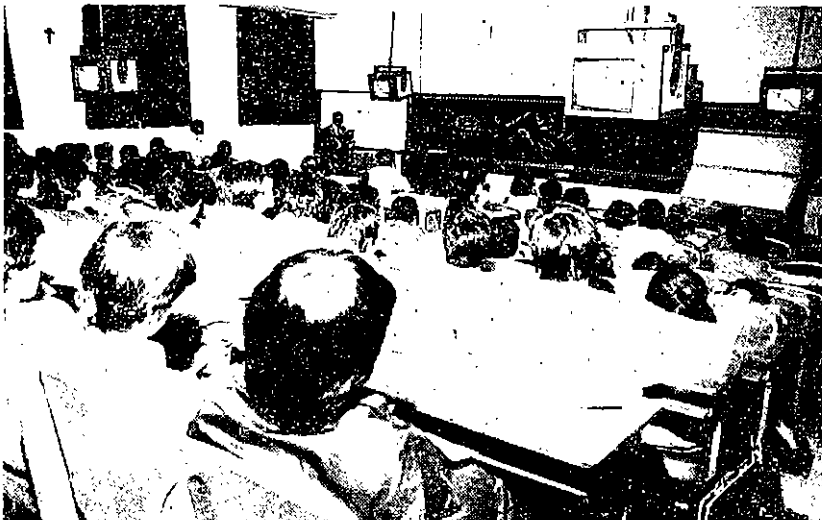
특기할 사항은 학생수와 교수수의 비율이 적당하여 세미나 양식의 수업을 많이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과과정이 완벽하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기에 교회의 교육이념과 시대적 변

화에 따라 교과과정과 교과목의 증설, 개편은 꾸준히 연구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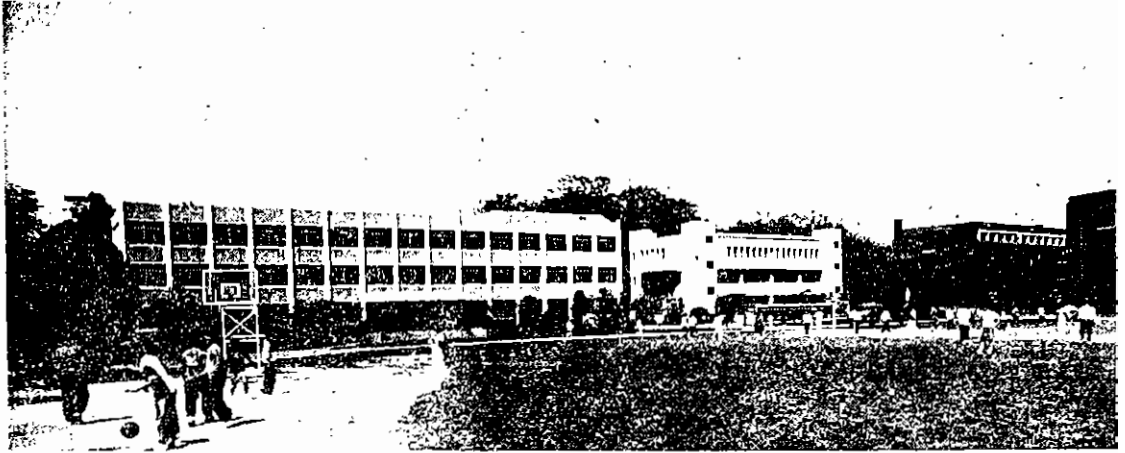
2) 醫科大學

개교 40 주년을 맞는 의과대학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올바른 윤리와 지성을 통합한 인격을 닦아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의료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문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로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능력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의학교육과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속에서 국민보건, 의료문제를 스스로 발견, 정의 및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수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학을 통한 새로운 의사상과 의료윤리를 확립하여 이를 모든 의료 및 연구활동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의학적으로 분석, 비판하고 이에 맞는 의료 전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의학 발전을 위한 독창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자발적 교육으로 자기지향적 학습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의학과 관련된 주변 학문은 물론 기타 학문에 대하여도 넓은 식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내적으로는 물



◀ 의과대학 학생강의실



▲ 神學大는 전통적인 가톨릭 성직자의 양성을 위해 靈性생활과 신학을 중점 교육하며, 평신도 지도자도 양성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인재를 기르고 있다.

론 국제적인 제반 의학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키운다.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간호학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법을 교수지도 및 연구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협동정신과 지도력이 풍부한 간호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첫째, 개인과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건강유지, 건강회복, 질병예방을 위한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둘째, 간호문제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셋째,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의 독자적 기능과 상호협동적 기능을 판단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넷째, 간호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전문직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의무와 책임을 명백하게 인식시킨다. 다섯째, 간호단위 조직을 관리하는 지도자적 능력과 자질 향상, 전문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 임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가톨릭 증양의료원의 이념에 충실하여 임종자를 위한 봉사와 호스피스(hospice)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進路方向

본교의 교육은 신학대학이 진리·사랑·현신

을, 의과대학이 연구·응용·사회봉사라는 교육이념에 따라 학문의 탐구와 人類의 福祉增進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정신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神學大學은 司祭志望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司祭職 遂行을 위해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준비시키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신학적 판단을 내리게 하여 보다 전문적인 司牧活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평신도들도 보다 적극적 방향에서 수학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학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다. 醫科大學에서는 교회의 의료기관으로서 갖는 특수한 사목적 기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患者診療와 看護業務에 종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에 앞장서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재학생 최상의 의료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방법론의 도입과 최신시설 및 인력을 개발함에 있어 다른 어느 대학보다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타대학과 交流를 증진코자 하며, 특히 가톨릭계의 타대학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여 상호보완을 통해 專門教育機關으로서 크게 발전하고 국내외에 많은 공헌을 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